

21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와 보편의 접합... '당위인 한국학' 모색 아직은 실용성 수준...보편적 가치론 정립해야

글_ 이경구(한림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교수)



인문학의 위기가 논의되는 와중에도, 한국학은 뜨고 있다. '원' 단위의 대규모 연구소가 속속 생겨났으며 한국학과 관련 분야가 학계의 유망 성장 분야로 선정되기도 한다. 의외의 조명 이면에는 한국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한국학을 두고 벌

어지는 논쟁은 거칠게 보면 주체의 자기 인식과 타자의 사유 방식의 문제,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통한 보편성 검증의 문제, 학문의 현실 참여와 객관 중립성의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기에 민족 대 탈민족, 과거 청산과 포용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하면 논의는 복잡하게 굴절된다.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당시의 논의를 보완한 책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2005)을 최근 출판하였다. 심포지엄은 민족학으로서 한국학과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한쪽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의 접점을 점검하는 것이 더 대안적이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었다.

타자 시선 아우른 주체의 객관화...한국학의 과제

한국학은, 예컨대 유교적 표현을 빌면 수기(修己)에서 치인(治人) 나아가 천인(天人)의 합일이라는, 말하자면 개인과 객관 사물의 조화를 지향하였던 전근대의 사유 방식을 자기 유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유산은 근대화 물결 속에 근본부터 흔들렸고, 그 결과 수동적 주체만이 양산되었다. 일각에서 국학운동을 전개하여 근대민족국가를 향한 이념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요구가 학문적 동기를 앞섰다. 요컨대 20세기 한국학은 서구식 근대의 충격이란 작용과 반작용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한국학은 민족 혹은 민족의 요구에 기반하여 비교적 손쉽게 반작용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 약점으로 인해, '당위인 한국학'의 정체성을 검증하자는 요구가 왕왕 있었다. 그들은 민족으로 대표되는 선형적 가치의 개입, 그로부터 파생되는 타자와의 비교 혹은 관계의 단절, 그리고 보편성의 결여를 지적하며 한국학의 맹점을 성토했다.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그 대안이었다. 지역학이, 19세기 제국주의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출발했다는 원죄를 벗는

다면, 이슬람·동아시아·중남미 그리고 서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면, 지역학의 판정승이다. 하지만 원죄를 벗을 수 있을까. 가치중립적 타자란 가능한 존재일까. 타자는 나와 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학을 둘러싼 두 논쟁이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이라면 절망적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서는 재미가 없다. 확실한 것은 한국학의 대상이 한반도라는 공간, 역사는 시간 속에서 문화적·사회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로 '있다'는 사실이다. 그 존재의 요소모모를 처해 있는 입장에서 각자 다룬다면, 논쟁이 하나로 귀일함은 애초 불가능했을 뿐더러, 불필요하기까지 하다.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겠지만, 정의에 급급하기보다는, 특수 속에 보편을 담아내는 여러 시도들 혹은 방법론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다. 타자의 시선을 아우른 주체의 객관화하기, 그 가능성 여부가 한국학의 새 지평을 여는 열쇠일 것이다.

한국학 '지형'의 변화, 개별 인자의 가치와 시야 부상

한국학 개념의 중층성 혹은 존재의 양면성을 인정하고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한 데에는 한국학을 둘러싼 지형 변화가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다.

산업사회가 단기간에 전근대를 해체했듯이, 지식 기반형 사회는 산업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학문 영역만 따지더라도 지식은 선형 대칭을 넘어 비선형 대칭으로, 아니 '지식' 자체가 '정보'로 나아가고 있다. 개별 정보가 독립적인 가치로 의미를 획득하면서, 지식의 수립과는 다른, 정보의 총합을 총칭으로 엮는 새 길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거대 틀을 벗어나 개별 인자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회를 조망한다. 개인, 가족·가문, 성gender, 지방, 종교, 문화 등이 새로운 개념틀로서 부상하고 있다. 전근대의 자기 사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근대를 넘으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근대의 대안 가치인 생태사상을 한국 사상(동양 사상)의 전통에서 찾으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기존 담론에서 소외된 범주가 부상하거나 탈근대의 가치를 찾는 노력 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한국학의 민족성이나 지역성을 따지는 20세기형 질문은 이미 떠분할 수도 있다. 다만 흥미로운 일은 이런 판짜기가 전통 학문의 방법론과 때로 유사함을 보

한국학의 특징과 한계, 발전을 위한 조건

글_ 최장집(고려대 정외과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장)

본문은 지난 12월8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개최한 '한국학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최장집 교수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지면 사정상 2회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한국학”이라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용상의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필자는 한국학을 넓은 의미의 한국학과 좁은 의미의 한국학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한국학은 한국을 연구의 주제 또는 대상으로 하는 학문 내지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한국학은 바깥에서 또는 밖으로부터 한국을 보고, 연구하는 것, 또는 한국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문제를 볼 경우 이를 한국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Korean studies'라고 할 때 그러한 말 뜻은 곧 좁은 의미의 한국학을 말한다. 필자는 한국학이라고 말할 때 이 좁은 의미의 한국학이 원래 의미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우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해 말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한국학의 국내 부분을 의미한다. 이 넓은 의미의 한국학을 한국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일부러 만든 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학자들이 미국사회에 대해 말하거나, 프랑스학자들이 프랑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미국학, 프랑스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예컨대 영국정치학자들이 독일정치학에 대해 연구할 때, 그것은 독일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는 그 연구를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한국학이다, 일본학이다, 이슬람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서구의 바깥지역, 특수한 문화, 역사를 갖는, 그러므로 보편적 학문으로부터 벗어난, 그 외부의 무언가 따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즉 '국지적, 특수주의적, 주변적'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다음페이지〉▶

인다는 점이다. 사족이겠지만, 그 점에서도 전근대와 근대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

‘민족적 틀의 외피 해체... 새로운 한국학, 축소·확대의 이중적 면모’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학의 방법으로 한국학이 포괄 혹은 연대하는 다양한 분과, 분야에 대한 소통을 화두로 삼았다. 통합 인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사회과학 나아가 자연과학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범주에서 한국사의 경험은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한국학 내부의 또 다른 주제인 다양한 집단의 발굴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주제가 통합 인문학으로서의 가능성, 사회과학과의 대화, 동아시아속에서의 한국학, 지방학의 가능성으로 짜여진 것은 그때문이었다. 논의의 개별성과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필자들의 논의를 보면 20세기까지의 한국학은 일견 해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족적 틀 속에 온존했던 한국학의 외피는 해체다. 반면 한국학이 기반한 한반도의 공동체 혹은 문화·언어적 고유성을 공유하는 한국인 집단에 대한 담론은 더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양산된다. 한국사 속에서 세계사

의 보편성 찾기, 여성·종교·지방 등 다양한 주체의 발굴, 전통적 사유와의 변증법적 통합, 개인 자율성의 복원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한국학은 일견 축소되는 듯하지만 일견 확대되는 이중의 길을 걷는다.

현재 한국학이 맞이한 호기는 아직 실용성에 머물러 있다. 진지한 성찰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의 창출과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론의 정립을 위한 여정은 이제 합의를 위한 의제를 내고 있는 단계다. 이런 작업을 통해 세계인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진정한 한류轉流를 흘릴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최장집**

● 이 글을 쓴 이경구는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논문으로 〈17~18세기 장동(張東) 김문(金文)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3),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역사와현실》 53호, 2004), 〈법전을 통해 본 17~18세기 서울의 변화〉(《서울학연구》 25호, 2005) 등이 있다.